장흥 '낙지 음식 전문화 사업' 표류

위판장 없어 생산량 90% 외부 반출

郡 지원 받은 음식점 개점 휴업 방치

장흥산 낙지의 브랜드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낙지 음식전문화' 사업이 허술한 유통체계와 무분별한 음식점 선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공모 과정을 거쳐 지역내 식당 4개소를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정하고 군비 5천만원과 상사업비 1억3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군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이들 식당들이 쇠고기 전문식당으로 둔갑하거나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낙지 전문식당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유통체계로 장흥산 낙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흥지역에서는 연간 전남 전체 생산량의 40%인 1천550t의 낙지가 잡히고 있으나 관내에 수산물 위판장이 없어 도매상들에 의해 90%이상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지역 식당들이 역으로 목포나 인근 강진 마량 등지에서 장흥산 낙지를 비싼 가격에 사올 수 밖에 없어 수지 타산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 식당들이 무안이나 영암 독천과 같이 낙지를 주 재료로 한 독특한 음식 개발에 소홀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정돼 8천만원을 지원받은 안양면 모 식당의 경우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농림관리지역내에 위치해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 아토피 발생률 '전국 최저'

인도주의의사회, 영유아·소아 2% 발생

장흥군의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영유아와 소아의 지역별 알레르기 질환 실태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 등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전국에서 전남지역이 가장 낮았다.

특히 장흥군은 인구 대비 아토피 환자 발생률이 2%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은 각각 2.5%를 보였다.

반면 전국에서 천식 및 아토피 발생률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시의 경우 중구 31.8% 종로구 13.8%, 강남구 11%, 서초구 9.7%, 서대문구 9.4% 등이다.

장흥지역의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그동안 장흥군이 추진한 '한방 아토피 체험교실운영'과 아토피 예방 치료사업이 주효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공무원 해외연수 시의원 포함 말썽

나주시, 북유럽 연수단에 시의원 5명 끼워넣기

나주시가 공무원 해외 연수에 시의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의원을 배려한 외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나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혁신도시지원 김모 전 단장 등 14명은 지난 13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6천400여만원(1인당 460만원)을 들여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 외유를 떠났다.

나주혁신도시 건설 유공자 위로 등을 위해 추진된 연수단에 시의회 김모 위원장 등 의원 5명, 혁신도시 주민대책위(2명), 사회단체(2명), 지역언론인 등 민간인은 5명이 포함됐으며 관련부서 공무원은 김모 전 단장 등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럽 외유를 추진했다가 태풍 '나리' 피해 등 농민들의 반발 정서를 감안해 포기했던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 공무원 연수로 포장된 의원 외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의원들이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무관한데다 방문지도 노르웨이 송네피요르드, 덴마크 아말리엔보그 성, 헬싱키 지하암석교회 등 문화·관광지 일색으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수 참가자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유공자를 중심으로 대책위 등에서 추천받았으며 의회 차원의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의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함평 나비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통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 진입로인 함평 IC~수호리간 도로(1.8㎞)가 16일 개통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돈수)은 사업비 98억원을 들여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엑스포 개장에 맞춰 공사기간을 14개월 단축해 조기 개통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화순 복합 실내체육관 오늘 첫 삽

화순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복합 실내체육관이 16일 첫 삽을 뜬다. 〈조감도〉

화순읍 대리 공설운동장 인근 5만209㎡ 부지에 들어설 실내체육관은 전체 건물면적 1만7천262㎡ 규모의 지상 2층, 지하 2층 구조로 1층은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영화상영 등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하고 2층은 각종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330억원으로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복합 실내체육관 완공 후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고 2010년에는 전남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군 공공건물 신축 부지

공식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

예산 절감 모범사례 '주목'

강진군이 공공건물 신축 부지를 공식 감정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에 매입,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금액보다 5천만원 싸게 매입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건물 신축부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가격을 웃도는 금액에 매매하는 관행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다.

군이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부지선정과 함께 토지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당시 읍내 최대 상권 중심지인 남성리 일대 1천459㎡의 감정가는 ㎡당 47만5천여원으로 모두 6억9천200여만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최소한 감정가격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던 출향 향우인 토지소유주를 수차례 찾아가 부지매각의 필요성과 애향심을 자극했다.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평가금액에서 5천여만원 낮은 가격에 부지 매입 계약을 맺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팔아준 토지 소유주의 애향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사업이라면 땅값이 오히려 치솟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새단장 개장

15일 문을 연 섬진강 기차마을 펜션. 사진 아래쪽이 통일호를 개조한 기차펜션이며 오른쪽 언덕에 목조펜션이 보인다. 〈곡성군 제공〉

기차펜션 조성·목조 역사도 건립

소나무·장미·유채 생태공원으로

관광용 증기기관차에서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새롭게 단장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곡성군은 15일 섬진강 기차마을의 종착역인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에 위치한 가정역에서 조형래 곡성군수 등 공무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기차마을 재개장식 행사를 가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기차마을 시설 확충작업에 착수해 폐객차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기차펜션을 비롯한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휴게음식점을 겸한 목조 역사도 새로 건립했다.

또 가정역 주변 잔여 폐철도 2.8㎞ 구간을 철로자전거 관광로로 조성하고 시발역인 곡성역에는 소나무 300그루, 장미 1만그루, 14만8천㎡의 유채밭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만들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1998년 전라선 개량화 공사로 철길 13.2㎞가 폐쇄되자 곡성군이 2005년 이를 매입, 폐철도에 관광용 증기기관차 등을 투입해 운영하면서 연간 37만여명이 찾는 국민 관광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